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학번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벤쿠버
파견대학	랑가라	기간	1/14~2/4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랑가라 대학은 w49ave,manitoba st 에 위치한 곳으로 근처에 캐나다 라인으로 연결되는 스카이트레인이 있습니다. 규모는 그리 크지 않고 건물 내외부는 깔끔합니다. 다양한 학생들이 있어서 자유로운 분위기와 활발한 분위기가 공존합니다.
수업	수업내용은 벤쿠버의 문화 및 교통 관련 캐나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는 내용의 수업을 하고 수업은 방법은 학교에서 나누어준 책으로 스케줄에 맞게 진행됩니다 분반은 없었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이 다같이 수업에 참여하고 숙제는 10분~30분내지 오래 걸리지 않는 숙제이고 가끔 홈스테이 가족과 인터뷰 저널 숙제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마다 액티비티 활동이 있는데 아쿠아리움 또는 스노우 슈잉, 컬링등 다양한 외부 활동도 준비되어 있어 학생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수업중 그룹활동을 자주 갖으며 서로 영어로 대화하는 시간이 많고 영어회화수업 듣는 느낌으로 보면 됩니다
Activity	액티비티 종류로는 아쿠아리움,컬링,스노우슈잉,뮤지엄오브벤쿠버,랑가라 학생들과 만남,이 있었습니다 따로 추가비용은 들지 않으며 조원들과 함께 조사하고 발표하는 식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활동이 끝난후에는 그 곳에서부터 바로 자유시간이어서 끝난후 계획을 미리 짜놓는 것이 현명합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20일동안에 날씨중 파란 하늘을 본 기억이 4번정도 기억이 납니다. 밴쿠버의 겨울은 비가 자주 옵니다. 영국과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때문에 항상 우산을 가지고 다니셔야 하고 방수가 잘되고 튼튼한 우산을 가져오시는게 좋습니다 날씨는 한국보다 춥지 않았으나 3주동안 우중충한 날씨를 많이 자주 보았습니다.
안전	겨울의 밴쿠버는 5시만 되도 어두워 지기 때문에 혼자 거리를 걷게되면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되도록 방향이 같은 학생들과 귀가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운타운 주변에 홈리스(노숙자)들이 많지만 위협을 가하거나 기분이 상하는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버스나 스카이 트레인을 이용할 때는 가방을 앞으로 매는 것이 안전하며 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숙소	학교기숙사() 홈스테이(o) 외부 숙소() 기타() 저는 아버지 어머니 아들 두명 인 집으로 배정 받았는데 규칙은 기본적인 룰만 지키시면 되고 유의사항은 빨래는 주1회로 한정되고 샤워시간은 짧게10분내로 해달라고 강조해주셨습니다 집이 난방이 따로 안되 난방기구를 주셨는데 처음에는 춥지만 잘때는 따뜻해서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식사	학교식당() 홈스테이 () 외부식당 (0) 기타() 저는 아침은 매일 씨리얼을 먹고 가끔 빵을 주셨는데 너무 딱딱해서 씨리얼만 먹었습니다 아침이 부실해서 그런지 점심에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점심은 홈스테이에서 주신 런치팩을 항상 먹었는데 다행히 음식솜씨가 좋아 항상 맛있는 점심을 싸주셨습니다 다만 토마토를 못 먹는다고 지원서에 표시했는데 토마토 덮밥을 주신 날은 다른 학생과 바꿔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 저녁 토마토를 못먹는다고 바로 말하니까 솔직하게 말해주셔서 고맙다고 답해주셨습니다 다른 학생은 말을 못해 3주동안 입맛에 안맞는 점심을 매번 먹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웠는데 입맛에 맞지 않으면 바로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저녁은 항상 밖에서 사먹었습니다 물가에 비싸다보니 한 끼당 텍스와 팁 포함 20불 내외로 먹는데 전반적으로 음식이 많이 짜다보니 간을 조절 할수 있다면 저용으로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이해하고 보면 한국보다 더욱 간단하게 교통 시스템이 마련되어있습니다. 길 찾기가 어려우시면 구글 맵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목적지에 가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나뉘어 저있는데 버스는 모든 구역 동일한 금액으로 이용 할수 있지만 스카이트레인을 이용하실 때에는 구역을 넘어가시게 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산 잘하시고 이용 하셔야됩니다(주말과 평일 6:30pm이후에는 모든구역 동일하게 측정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
--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eTA, 여행자보험	약1,200,00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식비	600,000원	
쇼핑	100,000원	
기념품	180,000원	
그 외 입장료	90,000원	
합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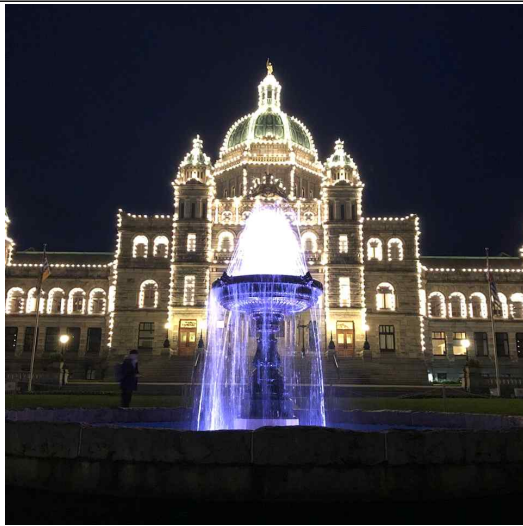
5. 출국 전 준비사항

감기약등 비상약을 구비 하시는게 좋고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레인부츠나 방수가 되는 신발을 가져오시는게 편합니다 우산은 엄청 자주 쓰기 때문에 튼튼한거 쓰시는게 좋고 도착하기전 미리 메일로 필요한 물품을 알아가시는게 좋고 수건3장정도 챙기시는게 좋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수건을 안주셔서 캐나다에서 구매하여 사용했습니다. .

6. 본인 소감 및 평가

외국으로 혼자 여행을 처음 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3주는 생각 보다 많이 짧기 때문에 저는 수업 끝난후 매일 돌아다녔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시간이 아까워서 계속 돌아 다녔습니다. 첫 단독 해외여행이 성공적이여서 만족스럽고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잘하지는 못하지만 먼저 다가가 말을 걸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고 스스로 무언가 찾아 행동하는 능동적인 생각이 늘었습니다. 이번 단기어학연수를 통해 소중한 경험과 기억들을 만들게 되어 행복했습니다. 스펙이 아닌 나 자신에게 좋은 경험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빅토리아 야경사진



플라이오버(캐나다플레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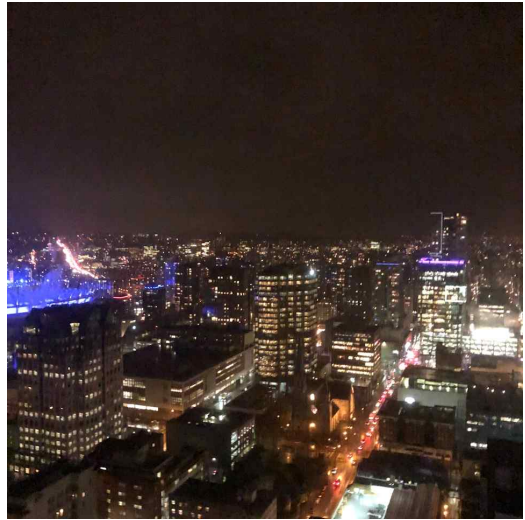
캐필라노(비가오는 날에 가는것도
매력이 있다)



밴쿠버 아쿠아리움(엑티비티)



스노우슈잉(사이퍼러스)



하버타운 야경 전망